

Hermann Hesse의 「Siddhartha」에 나타난 단일성사상 연구

權 奇 錄

(獨文科 助教)

<목 차>

- | | |
|--------------|---------------|
| I. 창작 배경 | 1. 정신적 수련의 길 |
| II. 구조적 특징 | 2. 감성적 체험의 길 |
| III. 강의 기능 | 3. 단일성 사상의 체험 |
| IV. 양극적 단일사상 | V. 결 론 |

I. 창작 배경

Hermann Hesse는 「印度의 詩」(Eine indische Dichtung)라는 부제가 암시해 주듯이 이 「Siddhartha」속에 인도종교에 대해 매력을 느낀 것과, 인간 및 시인으로서 인도사상에서 인용해 온 것들을 유감없이 표현해 놓았다. Hesse가 이처럼 동양사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그는 인도에서 활동한 바 있는 선교사의 후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Hesse의 아버지 Johannes Hesse가 쓴 傳記¹⁾에 의하면, Hesse의 외조부 Hermann Gundert는 경건주의 가정출신으로서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한 선교단의 일원인 동시에 언어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인도어연구에 몰두한 동양어학자였다. Hesse의 어머니 Maria Hesse는 이처럼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다. 한편 Hesse의 아버지도 경건주의 가정출신으로서 깊은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서 Basel선교단의 일원으로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그는 특히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독일로 돌아온 후 경건주의자들의 거주지 Korntal에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내면서 老子(Lao-tse)에 관한 글²⁾을 발표함으로써 유럽에서 일고 있던 동양에 대한 관심을 한층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일생동안 동양정신을 파악하고, 동양정신에서 초시간적으로 보편타당한 것을 책속에 표현해 놓으려고 했다. 그래서 J. Hesse의 이러한 활동은 Hesse의 정신적 발전의 방향설정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³⁾ 이처럼 Hesse는 외조부의 인도에 대한 연구 및 그에 관련된

1) Johannes Hesse가 그의 장인 Hermann Gundert 박사의 생애를 기록한 아 전기는 1907년 "Calwer Familienbibliothek"중의 제34권으로 출판되었다.

2) 이 글은 1914년 Basel 선교단의 연구물시리즈에서 "Lao-tse, ein vorchristlicher Wahrheitszeuge"라는 표제로 출판되었다.

3) Vgl. Zum Gedächtnis. In: Hermann Hesse Gesammelte Werke in 12 Bänden.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76. (이하 G.W.로 생략함) Bd. 10. S.126.

책들, 또 아버지의 동양사상에 대한 소개등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동양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Hesse의 종교관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글이 그의 「Mein Glaube(1931)」인데, 여기에는 그의 인도 정신에 대한 입장이 표현되어 있다.

“나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인도 정신을 어린시절부터 완전히 똑같이 호흡하고 체험했다.”⁴⁾

Ich habe das geistige Indertum ganz ebenso von Kind auf eingeatmet und miterlebt wie das Christentum.

어린 시절부터 인도정신과 접촉하게 된 결과 Hesse는 혼란상태에 처한 유럽의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인도에서 마음의 평화와 갈등의 해소, 낙원과 같은 원시적 통일상태를 발견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Hesse의 인도에 대한 관심의 최초의 외부적 표출이 1911년에 단행된 그의 인도여행이었다. 그러나 그는 꿈에 그리던 인도를 직접가 보고 나서 실망감만을 안고 돌아왔다. 그가 이런 실망감을 갖게된 이유는 바로 서양인으로서 그는 이러한 동양의 낙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Hesse가 인도여행에서 얻어온 것은 「동양의 정신에 대한 깊은 경외심」⁵⁾이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인도여행은 그의 단일성사상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켜주었다. 한편 인도여행은 자기자신의 경험세계에서의 어떤 도피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Hesse는 분명히 인식했다.

“우리는 이미 낙원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갖고 세우려고 하는 새로운 낙원은 적도에서나 동양의 따뜻한 바다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 낙원은 바로 우리들안에 있고, 우리 자신의 복구적 미래속에 있다.”⁶⁾

Wir haben längst das Paradies verloren, und das neue, das wir haben und bauen wollen, ist nicht am Äquator und an den warmen Meeren des Ostens zu finden, das liegt in uns und in unserer eignen nordländischen Zukunft.

이렇게해서 Hesse는 자신이 꿈꾸어온 황금시대의 원시상태로부터 벗어났다. 그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Vision으로서 인식하고 있던 동양의 마술이 그의 상상세계 및 사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학설과 예지를 회의적으로 연구분석했다. 이러한 동양에 대한 관심의 결실로서 창작된 것이 바로 「Siddhartha」이다. Hesse 자신도 이 作品의 내용을 「인도와 중국사상에 대한 거의 20년에 걸친 우애」⁷⁾의 산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 作品을 통해서 인도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작을 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Hesse는 1919년 겨울에 이 作品을 창작하기

4) Mein Glaube. G.W. Bd. 10. S.70.

5) Erinnerung an Indien. G.W. Bd. 6. S.289.

6) Pedrotallagalla. G.W. Bd. 6. S.283.

7) Brief, 29. 8. 1922 an Helene Welti. In: V. Michels(Hrsg.): Materialien zu H. Hesses "Siddhartha". Erster Band.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75. (이하 Mat. I.로 생략함) S.165.

시작해서 거의 4년이란 긴 세월을 거쳐 완성시켰다. 1917년에 발표된 「Demian」이 약 2개월 만에 완성된 것과 비교하면, 이 「Siddhartha」는 4년간의 창작기간을 포함해서 약 20년간의 긴 사색과 인고의 기간을 거친 산물임을 알 수 있다. Hesse는 창작을 시작할지 Siddhartha의 정신적 생활을 그리고 있는 4장을 아주 빨리 완성시켜 1920년에 Neue Rundschau誌에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일시 창작을 중단한 후 다시 Siddhartha의 세속생활을 그리고 있는 4장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로는 전혀 창작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입장을 1921년의 어느 일기에서 다음처럼 적고 있다.

“내가 체험한 것, 즉 예지를 찾고 고행을 하는 젊은 브라만의 기분을 詩作하는 동안에는 나의 인도의 詩는 잘 진행되었다. 내가 인내자로서, 금욕자로서의 Siddhartha를 끝내고, Siddhartha를 승려자, 긍정자, 극복자로서 詩作하려고 했을때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⁸⁾

In meiner indischen Dichtung war es glänzend gegangen, solange ich dichtete, was ich erlebt hatte: die Stimmung des jungen Brahmen, der die Weisheit sucht, der sich plagt und kasteit. Als ich mit Siddhartha dem Dulder und Asketen zu Ende war, und Siddhartha den Sieger, den Jasager, den Bezwingler dichten wollte, da ging es nicht mehr.

이처럼 자신이 체험한 바 없는 Siddhartha를 묘사한다는 것은 Hesse에게는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그는 인도에 대한 종전의 견해를 근본적으로 수정한후 1922년에야 비로소 나머지 4장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이 「Siddhartha」에서도 Hesse는 자기의 삶과 창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등장하는 테마인 양극적 단일성사상을 묘사해 놓고 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는 이 소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조명해보고, 또 이 작품의 구조적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강의 기능을 살펴본후, 이런 기초위에서 주인공이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단일성사상을 체험하게 되는가를 주목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구조적 특징

Hesse는 「Siddhartha」를 의형적으로 두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는 4장으로 구성된 제 1부를 불란서친구 Romain Rolland에게 헌정했고, 8장으로 구성된 제 2부를 자기에 동양의 언어, 문학, 종교등에 대해 깊이 연구하도록 자국을 준 의사촌 동생 Wilhelm Gundert에게 헌정했다. 그러나 소설의 내면적 구조를 좀더 심도있게 음미해 본다면, 이 소설은 각각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3개의 부분으로 구분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다.⁹⁾ 따라서 제 1부는

8) Tagebuch 1920/1921. Mat. I. S. 10.

9) Vgl. Th. Ziolkowski: Siddhartha-Die Landschaft der Seele. In: V. Michels (Hrsg.): Materialien zu H. Hesses "Siddhartha" Zweiter Band.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78. (이하 Mat. II.로 생략함) S.144.

Siddhartha의 정신적 수련의 생활로 요약될 수 있고, 제 2부는 Siddhartha의 감성적 체험생활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제 3부는 Siddhartha가 정신적 생활과 감성적 생활을 종합하고 조화시켜 단일성사상을 긍정하는 생활로 요약될 수 있다. 시간 및 공간적으로 볼 때 이러한 3생활단계들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Siddhartha의 강어편, 강저편, 강옆에서의 생활로 구획된다. 여기에서 각 생활단계는 거의 같은 기간, 즉 약 20년 정도 걸렸다는 점은 흥미롭다.

Siddhartha가 세속적 생활에 혐오를 느낀 나머지 강옆에서 살기위해 Kamala를 떠났을 때, 그는 「갓 40대」¹⁰⁾였다. 그들이 최초로 만났을 때, 그는 아직도 「젊은이」¹¹⁾였다. 또 Siddhartha가 세속적 체험생활을 마친후 다시 강옆에 와서 Vasudeva를 만났을 때, Vasudeva는 전에 Siddhartha가 강을 건너도록 도와주었던 일을 회상하는 대목에서 「아마 20년 이상이 지나간 것 같군요」¹²⁾라고 말했다. 이런 표현들을 기준으로 거꾸로 유추를 해볼 때, Siddhartha가 처음 강을 건넜을 때는 약 20대 초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계산을 해서 올라가보면, Siddhartha와 Govinda는 3년간 사문들 곁에 머물면서 금욕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렇다면 Siddhartha는 약 17세 무렵에 부모를 떠나 고행길에 올랐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Hesse는 Siddhartha의 약 17년에 걸친 유년시절을 몇개 안되는 문장으로 압축해서 소설의 첫부분에 묘사해 놓았다. 이렇게 볼 때 Siddhartha는 약 17년 동안의 유년시절 및 3년동안의 금욕생활을 포함해서 20년동안 강의 한 쪽면에서 정신적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Siddhartha는 처음 강을 건넌후 다시 강옆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20년동안 강의 다른 한쪽면에서 감성적 체험생활을 했다. 또 그가 Kamala를 강옆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와 Kamala가 헤어지기 전날밤에 임신된 아들이 어느덧 「11살」¹³⁾이다. 이 소설속에는 그 이상의 정확한 시간언급은 없고, 단지 아들이 다시 Siddhartha를 떠나가기까지는 「여러달」¹⁴⁾이 경과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표현들을 근거로 정리해보면, Siddhartha가 강옆에서 생활하면서 마지막 Govinda와 대화를 나누기까지는 대략 20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이 소설의 중요한 3시기 혹은 Siddhartha의 삶의 3단계는 거의 기간이 같다는 점이 밝혀진다.

Ⅲ. 강의 기능

Hesse가 자기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작품속에 등장시킨 상징요소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여컨대 「Demian」에서 神性和 魔性を 한몸에 지니고 있는 Abraxas, 「Der Steppenwolf」

10) Siddhartha. G.W. Bd. 5. S. 415.

11) ebda. S. 395.

12) ebda. S. 433.

13), 14) ebda. S. 444.

에서 현실과 환상의 마술적 통합의 상징인 Magisches Theater, 「Das Glasperlenspiel」에서 정신세계의 양극적 단일성의 상징인 Glasperlenspiel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요소들은 Hesse가 소위 대립적 양극을 포용하는 단일성사상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고안해낸 것으로서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Hesse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러한 상징요소들을 좀더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반면에 「Siddhartha」에서 Hesse는 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전례에 대한 완벽한 상징」¹⁵⁾을 찾은 것이다. 왜냐하면 강은 두영역을 가르고 있지만, 그 본질상 두 영역에 동시에 접하고 있으므로 독자의 이해를 위한 여러가지 설명이 필요없이 대립적 양극을 포용하는 단일성에 대한 중요한 상징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강은 이 소설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징요소로서 떨어지려는 힘을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강은 무시간성에 대한 상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Heraklit에서 Thomas Wolfe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Hesse는 이 소설의 소재로서 무시간성의 상징인 강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압제 때문에 괴로웠던 다른 많은 작가들, 예컨대 Proust, T.S. Eliot, Hermann Broch, Thomas Mann과 Faulkner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¹⁶⁾ 여기에서 무시간성은 바로 동시성과 관련된다.

“강은 도처에 동시에 있다. 즉 수원지에도, 강어귀에도, 폭포에도, 나무터에도, 여울에도, 바다에도, 산속에도 동시에 있다. 강에는 단지 현재만이 있고, 미래의 그림자는 없다.”¹⁷⁾

(...) daß der Fluß überall zugleich ist, am Ursprung und an der Mündung, am Wasserfall, an der Fähre, an der Stromschnelle, im Meer, im Gebirge, überall zugleich, und daß es für ihn nur Gegenwart gibt, nicht den Schatten Zukunft.

Hesse는 동시성과 무시간성의 상징인 강을 「Siddhartha」 속에서는 범위를 아주 확장시켜서 인생의 끊임없는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강은 변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무시간성과 동시성을 상징한다. Ziolkowski는 강이 지리상으로 볼때 정신세계와 감성세계라는 두영역 사이를 흐르면서 서로 분리시키고 있지만, 정신과 감성의 두영역에 강변을 접하고 있으므로 양극단의 자연적인 종합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⁸⁾ 더우기 그는 지리적인 공간 속에서의 Siddhartha의 방황과 강옆에서의 그의 완성을 그의 내면적 발전과 병행시켜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Hesse는 강의 상징적 기능에만 만족하지 않고, 강을 소설구조상의 중심적 요소로도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5) Th. Ziolkowski: Siddhartha-Die Landschaft der Seele. Mat. II. S.143.

16) Vgl. ebda. S.142.

17) Siddhartha. G.W. Bd. 5. S.436.

18) Vgl. Th. Ziolkowski: The Novels of Hermann Hesse. A Study in Theme and Structure. Princeton Univ. Press 1965. S.165f.

IV. 양극적 단일사상

1. 정신적 수련의 길

주인공 Siddhartha는 브라만교사제의 아들로써 전승된 종교의식에 아주 조예가 깊었다. 그는 종교적 수련을 쌓으므로써 그 자신과 우주의 심오한 본질을 인식하고, 삶의 윤회와 자아존재의 고통에서 구제받고자 했다. 이런 그의 목표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자아를 투시하고 극복함으로써 참된 자기 (Selbst)에 도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Hesse는 자아를 2개로 구분했다.

“우리들 자아의 내부에는 2개의 자아가 있다. (...) 우리의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개성적인 자아는 매우 변화와 변덕이 심하고, 외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 반면에 다른 자아는 前者에 숨겨진 채 함께 존재하지만, 그것과 결코 혼동되지 않는다. 이 至高하고 성스러운 제 2의 자아(즉 인도인들의 Atman)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신, 삶, 완전한 것, 비개인적이고 초개인적인 것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이다.”¹⁹⁾

In jedem von uns sind zwei Ich, (...) Unser subjektives, empirisches, individuelles Ich (...) zeigt sich als sehr wechselnd, launisch, sehr abhängig von außen, Einflüssen sehr ausgesetzt. (...) Dann ist aber das andere Ich da, im ersten Ich verborgen, mit ihm vermischt, keineswegs aber mit ihm zu verwechseln. Dies zweite, hohe, heilige Ich (der Atman der Inder) ist nicht persönlich, sondern ist unser Anteil an Gott, am Leben, am Ganzen, am Un- und Überpersönlichen.

위 인용문에서 ‘至高하고 성스러운 자아’가 바로 참된 자기이고, 인도인들이 Atman²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Siddhartha는 실제 생활속에서 이런 자신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온갖 브라만교의 종교의식을 통해서도 그는 이런 자아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종교의식에 대해 불만과 회의가 싹텄다. 이제 그는 자신을 찾기위해 방황의 길에 올라 금욕과 요가를 통해 정신적 생활을 하는 승려들인 사문들에게 가담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금욕과 요가를 고도로 행함으로써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자아에서 벗어나는 데에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친구 Govinda와 함께 사문들결에서 금욕과 요가를 통해 「마음을 텅비우는 것, 즉 욕망, 소망, 꿈, 기쁨과 고뇌에서 벗어나는 것」²¹⁾과 자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더이상 자아가 아닌 최후의 것, 가장 본질적인 것, 커다란 신비」²²⁾가 밝혀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요가와 금욕을 통해 얻은 최후의 것 및 본질적인

19) Brief, Mai 1943 an einen jungen Menschen. Mat. I. S. 221.

20) 고대 인도 브라만교의 성전인 “Upanishad”에서는 Atman(참된자기)을 단일영혼, Brahman(범)을 세계영혼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면서, 참된 자기와 범의 합일, 즉 범아일어를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21), 22) Siddhartha. G.W. Bd. 5. S. 364.

것 따위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었고, 「창부춘의 술집」²³⁾에서나 「마부들과 노름꾼들」²⁴⁾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자아로부터의 기만적인 도피나 일시적인 마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처럼 Siddhartha는 금욕과 요가를 통해서는 일시적인 탈자아를 경험할 뿐이고, 곧 다시 자아로의 귀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깨닫고, 이런 방법으로는 참된 자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때 그에게는 중요한 각성이 일어났다. 그는 자아와 모든 본질 및 우주속에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바로 참된 자기(Atman)라는 사실을 깨달았다.²⁵⁾ 이러한 지식의 최악의 적은 지식욕, 학습, 교의의 추구이다. 다시 말하면 경험적 자아의 논증적 사고와 지식욕은 참된 자기의 포괄적 지식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 한편 지식 자체도 체험된 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고 불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각성을 한 Siddhartha는 친구 Govinda와 함께 금욕과 요가생활을 떠나서 Buddha를 찾아갔다. 비록 Buddha의 학설이 어떤 새로운 것을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Siddhartha에게는 그의 방문은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Buddha의 방문은 Siddhartha를 사문들로부터 해방시켜주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Hesse에게서 흔히 보이는 Motiv가 확인된다. Hesse의 정신세계 및 창작세계 일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Motiv들중의 하나는 바로 계속변모하고 항상 긴장상태 속에서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정신과 삶이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항상 체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인간이 모든 제도보다 더 고귀했다」²⁶⁾ Hesse는 이미 도달한 상태는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체험과 모험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했고, 또 이런 생각을 '단계'라는 詩에서도 「마음은 생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이별과 새출발의 각오를 해야만 한다」²⁷⁾고 표현했다. 여기에서 생의 외침은 바로 각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Hesse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개, 특히 Siddhartha는 각성의 도정을 걸으면서 삶의 매 단계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변전해가는 인간이다.

이제 Govinda는 세속극복과 구제의 교의를 설파하는 Buddha의 제자가 되지만, Siddhartha는 Buddha의 인품의 고귀함은 인정하지만, 그의 교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간다. 왜냐하면 Siddhartha는 「누구에게도 구제는 교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²⁸⁾는 점과, 또 어떤 경험을 전달하는 것과 스스로 경험하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동은 어떤 이론이나 교의로써는 보상될 수가 없다. 또 교의라는 것은 그것을 손수 체험한 자에게만 유효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Buddha의 완성도 그 자신의 추구와 방식, 명상과 인식, 각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교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교의나

23), 24) ebda. S. 366.

25) Vgl. ebda. S. 368f.

26) P. Böckmann: Hermann Hesse. In: O. Mann u. W. Rothe(Hrsg.): Deutsche Literatur im 20. Jahrhundert. Band II: Gestalten. A. Francke AG Verlag, Bern 1967. S. 124.

27) Das Glasperlenspiel. G.W. Bd. 9. S. 483.

28) Siddhartha. G.W. Bd. 5. S. 381.

이론따위는 진정한 인식의 방해요소가 된다. Hesse는 「Demian」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사고만이 가치가 있다」²⁹⁾고 했고, 「Das Glasperlenspiel」에서는 「진리는 체험되는 것이고, 그 수되는 것이 아니다」³⁰⁾라고 했다. Rudolf Pannwitz가 지적하듯이 Siddhartha가 Buddha를 떠나서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가는 전형적인 이유는 바로 이미 완성되고 정해진 것에는 그의 관심이 없다는 점과, Buddha가 완전한 것을 대표하는 인물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³¹⁾ 즉 Buddha는 스스로 구제자로서는 완성자일지 모르지만, 결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실행자로서는 완성자가 아니다. Siddhartha는 세속을 극복하고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피안까지를 지시하는 Buddha의 구제의 이론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현세에서 모든 현상들의 배후에 있는 단일성 사상을 체험함으로써 구제에 이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Siddhartha는 마치 「백이 그 낡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것」³²⁾ 같은 상쾌한 기분으로 Buddha와 Govinda를 떠났다. 이 시점에 그에게는 중요한 각성이 일어났다.

“나는 Atman을 찾았다. (...) 나는 마지의 마음속에서 모든 껍질의 핵, 즉 Atman, 삶, 성스러운 것, 최후의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분쇄하고 분석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에게는 자아자체가 없어져 버렸다.”³³⁾

Atman suchte ich, (...) ich war gewollt, mein Ich zu zerstückeln und auseinanderzuschälen, un in seinem unbekanntem Innersten den Kern aller Schalen zu finden, den Atman, das Leben, das Göttliche, das Letzte. Ich selbst aber ging mir dabei verloren.

여기에서의 그의 각성은 바로 그가 지금까지 항상 돌보지 않았으며 거의 파기하려고 했던 자아에 대한 각성이다. 이런 자아에 대한 각성은 마찬가지로 세계 및 현실적 삶에 대한 각성이 된다. Siddhartha는 이런 각성을 한 후 어떤 스승도 교의도 자기가 참된 자기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었고, 자기는 자신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길, 즉 고유한 체험과 모험을 피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자신에게서 배우고, 제자가 되고, 자신을 알고, Siddhartha라는 비밀을 알려고 결심했다. 요컨대 그는 경험적 자아가 되려고 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개성과 세계의 단일성을 포함하는 진리를 찾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Hesse에 의하면 모든 각성한 사람의 참의무라는 것은 「자기자신을 찾고, 마음 속에 확신을 갖고 자신의 길이 어느곳으로 향하든 간에 그 고유한 길을 앞으로 더듬어 나가는 것」³⁴⁾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이제 Siddhartha에게는 주변세계 및 자연은 변화되어서 더이상 「현상계

29) Demian. G.W. Bd. 5. S. 64.

30) Das Glasperlenspiel. G.W. Bd. 9. S. 85.

31) Vgl. Rudolf Pannwitz: Siddhartha. Mat. II. S. 95.

32) Siddhartha. G.W. Bd. 5. S. 383.

33) ebda. S. 384.

34) Demian. G.W. Bd. 5. S. 126.

의 무의미하고 우연한 다양함」³⁵⁾이 아니고, 의미심장하게 서로 관련된 자연의 합동유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Siddhartha는 정신지향적 생활을 떠나 감성과 체험의 현실세계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강을 건넌다. 여기에서 강은 정신세계와 감성세계 사이의 경계 및 종합으로서 상징적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포괄적 진리를 추구하는 Siddhartha가 정신세계와 감성세계를 두루 체험한 후에 다시 강옆으로 돌아와서 완성에 이르기 때문이다.

2. 감성적 체험의 길

금욕적 생활, 스승과 교의를 통해서 자기탐구의 길을 가던 Siddhartha는 이제 현실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참된 자기를 찾으려고 한다. 정신세계와 감성세계의 경계를 이루는 상징적 요소인 강을 사공 Vasudeva의 도움으로 건넌후, Siddhartha는 첫날밤에 Govinda가 어떤 여자로 변모되어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그는 감성세계를 암시해주는 여자의 유방을 빼는데, 그 유방의 젖은 「여자와 남자, 태양과 숲, 동물과 꽃, 모든 과일, 모든 쾌락의 냄새」³⁶⁾를 풍겼다. 강옆 사공의 오두막에서 꾸는 그의 꿈속에서는 Govinda로 대표되는 정신세계와 Kamala로 대표되는 감성세계가 동등하게 긍정되고 합일되었다. 이처럼 종합의 자연적인 상징인 강옆에서만 그런 꿈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꿈의 형상은 「Demian」에서 Sinclair의 남성적이고 동시에 여성적인 꿈의 이상을 강하게 연상시켜준다.³⁷⁾

이 꿈은 소설의 구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그 꿈은 정신세계와 감성세계 사이의 교차점을 묘사해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두 세계를 합일시키는 기능, 즉 Siddhartha가 감성세계에서 생활을 한 후 다시 강옆으로 돌아와서 체험하게 될 전체성과 동시성에 대한 Vision을 미리 예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감성세계에 자신을 개방해놓고, 사랑의 대가인 Kamala 곁에서 감성적 생활의 즐거움을 향유했고, 상인 Kamaswami를 통해 상인의 생활을 익혀 스스로도 모든 분야에 능숙하고 부유한 상인이 되었다. Siddhartha에게 있어서 Kamala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최후에 그의 완성 및 단일성체험에 결정적 도움을 주는 사공 Vasudeva의 중요성과 비견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재능을 소유한 Kamala와 사교하는 재능을 소유한 Siddhartha는 각자 상대방의 재능을 배우고 또 자신의 재능을 가르쳐줌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양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Hesse의 작품에서 흔히 등장하는 우정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서로 상대방과의 교류를 통해 상승작용을 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Kamala는 Siddhartha가 감성세계를 체험하고 장차 정신세계와 감성세계를

35) Siddhartha. G.W. Bd. 5. S. 385.

36) ebda. S. 390.

37) Vgl. Th. Ziolkowski: Siddhartha-Die Landschaft der Seele. Mat. II, S. 144.

종합해서 단일성 사상을 긍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촉매역할을 한다.

Siddhartha는 세속생활이 자기에게 제공하는 인생의 온갖 즐거움을 누렸다. 그래서 그는 세속적 사건의 끊임없는 순환, 즉 윤회(Sansara)에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속생활에 완전히 몰두하지 못하고, 세속사람들을 「지적인 면에서 어린아이들」³⁸⁾, 「떨어지는 나뭇잎」³⁹⁾으로 간주했다. 그는 이런 세속인들과는 달리 항상 다양한 현상들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의식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의식이 그를 세속인들과 분리시키고, 또 그를 Outsider로 만들었다. 이처럼 정신적 생활에도 감성적 생활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한 채, 그는 소위 양극적 생활, 다시 말하면 정신적이고 동시에 감성적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그에게는 사상과 감성, 「이 두가지에 모두 귀를 기울이고, 두 가지를 모두 다루고, 두 가지를 모두 경멸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고, 두가지 모두에서 나오는 마음의 은밀한 목소리를 엿들어 아는 것이 필요했다.」⁴⁰⁾ 그런데 어느날 그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목소리, 즉 「너 앞에는 너가 가도록 소명을 받은 길이 하나있다」⁴¹⁾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소명을 체험한 후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감성적 생활을 청산하고, 전에 정신세계에서 감성세계로 넘어올때 건넌적이 있는 강옆으로 갔다. 그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찡그린 얼굴을 보고, 거기에 침을 뱉었다. Siddhartha의 이런 행동은 「Klein und Wagner」에서 Kleir이 성적 도취상태에서 깨어난 후 Teresina의 침대에서 나와서 거울속에 비친 그의 흐트러지고 찡그린 얼굴을 바라볼때의 행동과 거의 유사하다.⁴²⁾ Siddhartha가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절망한 나머지 영원한 평화를 얻기위해 물에 빠져죽으려고 했을 때, 그에게는 각성이 일어났다. 그의 귀에는 모든 존재의 단일성을 상징하는 소리 음(Om)이 「그의 영혼의 아늑히 먼 부분에서」⁴³⁾ 성스럽게 울려왔다. 이와동시에 그는 자살하려던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고 무의미하다는 점을 깨달은 후 곧 잠이 들었다. 이로써 그가 정신적 수련의 방법과 세속생활을 통해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 그토록 벗어나고 극복하려고 했던 경험적 자아는 강물에 상징적으로 익사를 한 것이다. 이제 그의 마음속의 목소리는 다시 잠에서 깨어난 그에게 강옆에 머물고, 강으로부터 배울것을 강요했다. 그의 인생에서 Buddha의 방문이 그를 사문들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처럼 그의 감성생활은 정신적 생활경험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때 세속생활은 그에게 경험적 자아를 버리고 진정한 self를 찾으려 해주는 일종의 준비과정인 것이다.

Hesse는 모든 인간이, 고로 Siddhartha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을 스

38), 39) Siddhartha. G.W. Bd. 5. S. 409.

40) ebda. S. 390.

41) ebda. S. 417.

42) Vgl. H.J. Lüthi.: Hermann Hesse. Natur und Geist. Verlag W. Kohlhammer, Stuttgart 1970. S. 67.

43) Siddhartha. G.W. Bd. 5. S. 421.

스로 체험하는 것을 한층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간주했다. 그래서 Siddhartha는 어린시절부터 「속세의 쾌락과 부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⁴⁴⁾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소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감성생활을 했던 것이다. 결국 Siddhartha는 몸소 정신적 세계 및 감성적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참된 자신을 찾는 길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로(Umweg)를 걸어야만 했다.

3. 단일성 사상의 체험

Siddhartha는 참된 자신을 찾기위해 먼저 강의 한쪽면에서 정신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강의 다른 한쪽면에서 세속생활을 했다. 이제 그는 정신과 세속의 종합으로서 모든 존재의 단일성, 완전성과 동시성을 대표하는 강열에서 마지막 중요한 시기를 보낸다. 여기서 그의 단일성 사상의 수용 및 긍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스승이 있는데, 정신세계와 감성세계를 가르치는 강이 그 하나이고, 또 Siddhartha가 정신세계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감성 세계로 들어설때 만난 사공 Vasudeva가 다른 하나이다. 이점은 소설의 끝부분에서 Siddhartha가 Govinda를 다시 만나서 나눈 대화속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나는 여기 이강과 나의 선임자인 사공 Vasudeva로부터 가장 많이 배웠다. 그는 매우 소박한 사람이다. Vasudeva, 그는 결코 사상가는 아니지만, Gotama와 같이 꼭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완성자, 성자였다.”⁴⁵⁾

Am meisten aber habe ich hier von diesem Flusse gelernt und von meinem Vorgänger, dem Fährmann Vasudeva. Er war ein sehr einfacher Mensch, Vasudeva, er war kein Denker, aber er wußte das Notwendige, so gut wie Gotama, er war ein Vollkommener, ein Heiliger.

위 인용문에서 볼때 Siddhartha는 그의 인생에서 Vasudeva와 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후반기 그의 인생은 강과 Vasudeva와의 상호관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A. Hsia에 의하면 「Vasudeva는 道의 人的인 具現이고, 강은 道의 非人的인 具現」⁴⁶⁾인데, 이런 점에서 강과 Vasudeva는 도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목표인 道를 具現하고 있는 두실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Siddhartha」에 나타나 있는 도교적 지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Hesse가 1922년 2월에 Felix Braun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인도적 의상을 걸친 어떤 비슷한 것에 대해 꼼꼼히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브라만과 Buddha에서 출발하고 道에서 끝난다.”⁴⁷⁾

44) ebda. S. 429.

45) ebda. S. 462.

46) A. Hsia: Hermann Hesse und China. Darstellungen, Materialien und Interpretationen.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1. S. 240.

47) Brief, Mitte Februar 1922 an Felix Braun. Mat. I. S. 152.

(...) ich spinne schon lang an etwas Ähnlichem, in indischem Kleid, das von Brahman und Buddha ausgeht und bei Tao endet.

여기서 인도적 의상을 걸친 것은 다름아닌 소설 「Siddhartha」이다. 이런 Hesse의 표현을 근거로 볼 때 道를 具現하고 있는 강과 Vasudeva가 Siddhartha의 후반기 인생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한층 뚜렷해진다. 실제로 Vasudeva는 도교의 원리에 입각해서 강연에서의 자기 활동과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처럼, 즉 도교에서 말하는 성인처럼 행동한다. 한편 강은 Vasudeva의 스승이고, 또 Siddhartha의 스승역할을 한다.

이제 약 20년간 세속생활을 한후 다시 강연으로 돌아온 Siddhartha는 사공의 도움을 받으면서 강으로부터 배울 것을 결심했다. 전에 처음 만났을 때 Siddhartha는 사공에게서 「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⁴⁸⁾는 말을 들은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즉시 강으로부터 배울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양극적 단일성을 추구하는 그에게는 간단히 생략할 수 없는 세속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신 및 감성세계를 마음껏 맛본 후인 지금에야 비로소 그의 단일성체험의 길이 시작될 수 있다. 그는 사공의 조수로서 강에 귀를 기울인 결과 강에는 외양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불변하는 것, 영원한 변화속에서도 단일성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강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것, 가라앉는 것, 밀바다를 찾는 것」⁴⁹⁾은 좋다는 점도 배웠다.⁵⁰⁾ 이러한 점에서 볼때 고귀하고 부유한 Siddhartha가 이제 노젓는 사람이 되었고, 학식있던 브라만이 이제 사공이 됨으로써 Siddhartha가 한층 더 완성에, 즉 도교에서의 道에 가까이 접근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래서 A. Hsia는 Siddhartha가 이처럼 의형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가 내면적으로 올라가는 것과 일치한다고 했다.⁵¹⁾

강은 Siddhartha가 본질을 직관하도록 해주는 보조수단이다. 그런데 강은 도처에 동시에 있고, 현재만을 가질뿐이고, 미래의 어떤 그림자도 갖고 있지 않다.⁵²⁾ 이런 강의 수천가지의 소리에 몰두함으로써 Siddhartha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그는 이 모든 소리들이 하나의 소리로 응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소리는 바로 다양성속에서 단일성을 인식케 해주는 긍정의 소리 Om이었다.

한편 이 작품속에서 Hesse는 Siddhartha의 단일성체험은 「Klingsors letzter Sommer」에서

48) Siddhartha, G.W. Bd. 5. S. 391.

49) ebda. S. 435.

50) 여기에서는 도교의 원리가 확인된다. 노자의 도덕경 66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江海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모든 계곡들의 왕은 강과 바다이다. 이러한 점은 바로 강과 바다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뜻이다.)

김경돈 역주: 신역노자. 현암사, 서울 1984. S. 267.

51) Vgl. A. Hsia: a.a. O., S. 244.

52) Vgl. Siddhartha, G.W. Bd. 5. S. 436.

Klingsor가 기만적인 것으로 인식했던 시간을 극복함으로써만이 가능하게끔 묘사해 놓았다. 사건의 역사적인 전후관계로서의 시간은 참된 자신을 주위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요소인데, 이런 시간을 극복해서 모든 과거의 것과 미래의 것을 동시에 포함하는 현재를 체험함으로써, 즉 동시성을 체험함으로써 참된自己和 주위세계의 대립은 극복되고 조화로운 단일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단일성의 상태라는 것은 역사적, 시간적인 것의 밖에 존재하는 영원한 실재(Realität)로 이해할 수 있다.⁵³⁾ 그렇기 때문에 단일성의 체험은 아득한 미래에 있는 목표가 아니고, 시간의 극복을 통해서만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식의 영원한 가능성이다. 이 경우에 마취와 도취상태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일시적인 극복과 신비적 합일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영속적인 극복은 구별해야만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시간의 영속적인 극복이다. L.R. Shaw는 이미 Siddhartha의 단일성 및 무시간성에 이르는 길은 시간을 철저하게 체험함으로써 열린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⁵⁴⁾ Shaw는 제 1부에서의 Siddhartha의 정신적 생활을 「시간의 부정」⁵⁵⁾으로, 제 2부에서의 그의 감성생활을 「시간적인 것의 남김없는 이용」⁵⁶⁾으로 이해했다. Siddhartha는 제 3부에서 Vasudeva의 지도를 받고, 강을 모험으로 삼아서 무시간성의 상태, 즉 모든 대립의 피안에 있는 모든 현존재의 완전성과 단일성을 깨닫게 됐다.

Hesse는 이 작품속에서 Siddhartha의 삶을 강과 비교해서 묘사해놓고 있는데, 이제 시간 개념을 지양하고 보니 소년 Siddhartha와 어른 Siddhartha, 노인 Siddhartha는 다만 그림자에 의해서만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Siddhartha가 강으로부터 배운 동시성과 현재성의 원칙은 Hans Friederici의 표현을 빌자면 「윤리적 상대주의」⁵⁷⁾와 관련된다. 이렇게 볼때 악한 것은 동시에 선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의 정반대도 마찬가지로 진리」⁵⁸⁾이고, 전달되었거나 전달할 수 있는 사상은 항상 복잡한 현실의 한 단면만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무시간성을 체험한 Siddhartha에게는 이제 세계와 영원, 고뇌와 행복, 선과 악사이의 간극도 기만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Siddhartha는 세속생활 및 사공으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번 세속인들과 접촉을 한 결과, 이제는 이런 세속인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사고와 통찰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충동과 소망에 의해서 조종된 그들의 삶」⁵⁹⁾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심지어 그는 그들의 정열적인 행위에서 「삶과 생명이 있는 것, 파괴할 수 없는 것」⁶⁰⁾을 보았다.

53) Vgl. J. Röttger: Die Gestalt des Weisen bei Hermann Hesse. Bouvier Verlag, Bonn 1980. S. 119.

54) Vgl. L.R. Shaw: Zeit und Struktur des Siddhartha. Mat. II. S. 107. 55), 56) ebda. S. 111.

57) V. Ganeshan: Siddhartha und Indien. Mat. II. S. 241. 에서 재인용.

58) Siddhartha. G.W. Bd. 5. 463.

59) ebda. S. 453.

60) ebda. S. 454.

중전까지 그는 학식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세속인들에게는 삶의 단일성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한 학식도 「사고하는 사람들의 어린애 같은 언행」⁶¹⁾에 지나는 것이 아닐까하고 의심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고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 안목을 기르고, 또 세속인들의 정열적인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정도로 내적으로 성숙한 Siddhartha에게는 이제 서서히 자신의 목표를 인식했다는 감정이 자라났다. 「그것은 바로 매순간 삶의 한가운데에서 단일성 사상을 생각하고, 단일성을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영혼의 준비요, 능력이요, 은밀한 기술이었다.」⁶²⁾ 이와함께 그에게는 조화와 세계의 영원한 완전성에 대한 지식과, 미소와 단일성에 대한 지식이 서서히 성숙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기 전에, 그 지식은 사랑에 의해서 확증되고 감명받아야만 했다. Siddhartha는 사공으로서 생활하던 어느날 Kamala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만나 정열적으로 사랑하지만, 결국 아들이 자기를 떠나감으로써 심한 절망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그는 심한 사랑의 괴로움을 맛본 것이다. Hesse가 Siddhartha로 하여금 완성에 이르기전에 이처럼 사랑의 괴로움을 맛보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괴로움에 시달리는 자만이 진정으로 그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⁶³⁾ 이제야 비로소 그는 세속인들의 정열적인 사랑과 헌신을 이해하고, 또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완성자의 사랑이란 모든 창조물을 포용해야 하고, 개별인물을 편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Siddhartha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본질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통찰할 수가 있게 되었다.

차츰 Siddhartha가 완성에 가까워 지면서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퍼지는데, 이 미소는 「완성의 상징」⁶⁴⁾이다. 이미 조화와 완성상태에 도달해 있는 두성자, 즉 Buddha와 Vasudeva의 뚜렷한 특징도 빛을 발하는 미소였다. Siddhartha는 전에 Buddha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즐거움이나 슬픔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면을 향하여 조용히 미소짓는」⁶⁵⁾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제 이러한 미소가 Vasudeva의 얼굴에 나타나서 Siddhartha의 얼굴에까지 퍼졌다. 그래서 Siddhartha의 미소도 Vasudeva의 미소와 비슷하게 되고, 또 점차 그의 얼굴모습도 Vasudeva를 닮아갔다. 이처럼 Siddhartha는 완성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외면적으로 道를 具現하고 있는 Vasudeva를 닮아갔다. 이로써 Hesse가 「Siddhartha」는 道에서 끝난다고 한 말은 한층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Vasudeva의 얼굴에 나타나서 Siddhartha에게로 퍼지는 미소의 정체는 Vasudeva가 사공이라는 상징적 임무를 Siddhartha에게 맡기고 「단일성숙으로 들어가기 위해」⁶⁶⁾ Siddhartha와 작별할 때 더욱 분명

61), 62) ebda. S. 454.

63) Vgl. A. Hsia: a.a.O., S. 241.

64) Th. Ziolkowski: Siddhartha-Die Landschaft der Seele. Mat. II. S. 152.

65) Siddhartha. G.W. Bd. 5. S. 375.

66) ebda. S. 459.

하게 표현된다.

“Vasudeva의 미소는 밝게 빛났다. 그의 늙은 얼굴의 모든 주름살 위에 그 미소는 마치 강의 모든 소리위에 Om이 떠있는 것처럼 빛을 발하면서 떠있었다. 그가 친구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미소는 밝게 빛났다. 이제는 Siddhartha의 얼굴에서도 동일한 미소가 밝게 빛을 발했다.”⁶⁷⁾

Hell glänzte Vasudevas Lächeln, über all den Runzeln seines alten Antlitzes schwebte es leuchtend, wie über all den Stimmen des Flusses das Om schwebte. Hell glänzte sein Lächeln, als er den Freund anblickte, und hell glänzte nun auch auf Siddharthas Gesicht dasselbe Lächeln auf.

이런 미소는 내적 완성을 상징하는데, Hesse에게 있어서 내적 완성은 모든 존재의 단일성과 완전성 및 동시성에 대한 자기의식화(das Sich-Bewußt-Werden)를 의미한다.⁶⁸⁾ 마지막 해후에서 Govinda는 Siddhartha의 요청에 따라 그의 이마에 키스를 함으로써 아주 환상적인 체험을 했다. 이러한 환상속에서 Govinda는 「모두 왔다가 사라지고, 모두 동시에 현존하는 것같은 수백, 수천의 얼굴들의 흐르는 강」⁶⁹⁾을 보았다. 이런 Govinda에게는 차츰 「흐르는 무수한 형상들위에 있는 단일성의 미소, (...) Siddhartha의 이 미소는 Gotama Buddha의 미소와 똑같은 것, 즉 동일한 것」⁷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Govinda는 지금까지 Buddha를 완성자로서 섬겨왔는데, 이제 키스를 통해 Siddhartha와 신비적 합일을 체험함으로써, Siddhartha의 이런 미소는 Buddha에게서 종종 보았던 것과 동일하고 현명한 미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처럼 Govinda도 Siddhartha가 최후의 완성단계에 도달했음을 인식했다. Buddha가 정신적 수련을 통해서 완성에 도달했다면, Vasudeva는 강의 소리에 충실히 귀를 기울이므로써 완성에 도달했다. 반면에 Siddhartha는 정신적 수련과 감성적 체험이라는 양극을 두루 섭렵함으로써 단일성에의 가능성을 자각한 후 양극의 종합을 상징하는 강열에서 완성에 도달하게 됐다. 이처럼 이들 세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각자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미소를 얼굴에 띠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빛을 발하는 미소는 이들 세사람의 완성을 뜻한다는 점이 한층 분명히 밝혀진다.

결론적으로 Siddhartha는 강의 내면적 본질을 완전히 수용해서 그 자신도 강이 상징하는 완전성과 동시성을 발산함으로써 완성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이상 개성적 자아가 아니고, 정신과 감성생활을 하면서 즉 추구해오던 참된 自己와 세계의 신비적합일에 도달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단일성을 긍정했고, 세상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자신을 세계발전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Hesse는 「Mein Glaube」에서 「나의 Siddhartha는 인식보다 사랑을 우위에 놓았고, 또 그는 독단을 배격하고 단일성

67) ebda. S. 459.

68) Vgl. Th. Ziolkowski: Siddhartha-Die Landschaft der Seele. Mat. II. S. 153.

69) Siddhartha. G.W. Bd. 5. S. 469.

70) ebda. S. 470.

의 체험을 중심에 놓았다」⁷¹⁾라고 적고 있다. Hesse의 이런 표현에 어울리게 Siddhartha는 「Demian」에서처럼 단순히 단일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지나서 외관상의 양극성 배후에 존재하는 단일성에 대한 긍정, 더우기 사랑에서의 긍정을 나타냈다. Hesse는 Siddhartha의 단일성에 대한 긍정을 이 소설 끝부분에서 수천의 흐르는 형상들에 대한 단일성의 미소를 통해서 축약적으로 묘사해 놓았다.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Siddhartha는 일반적으로 완벽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교의나 사상도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목소리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하는 인간으로서, 자기와 세계를 포괄하는 단일성을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그는 금욕적 정진생활을 한 결과 자기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그 다음에 그는 감성적 생활을 한 결과 모든 인간과 직업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이런 상반된 생활을 모두 체험해 본후 마침내 종합의 자연적 상징인 강옆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자기와 세계의 신비적 합일을 맞출 수 있었다. 원래 Hesse에게 있어서 첫번째 신앙원칙은 바로 대립쌍들의 배후와 그 위에 있는 단일성이었다. 그는 1954년 어느 편지에서 「물론 나는 《능동적인》 및 《관조적인》 같은 그런 도식을 설정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 능동적인 것이 있고, 관조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단일성이 서 있다. 두개의 대립되는 것을 한몸에 지닌 者만이 실제로 활동적이고, 잘됐을 경우 모범적이다」⁷²⁾라고 적은 바 있다. Hesse는 자신의 이런 견해를 바로 「Siddhartha」속의 주인공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해 놓았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도 Hesse의 전생애와 사고속에 뿌리박고 있는 그의 단일성에 대한 사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다.

참 고 문 헌

I. Text

Hermann Hesse: Siddhartha. In: Gesammelte Werke in 12 Bänden. Bd. 5.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76.

II. Sekundärliteratur

71) Mein Glaube. G.W. Bd. 10. S. 72.

72) Brief, Dezember 1954 an Karl F. Borée. Mat. I. S. 237.

- H. Hesse: *Gesammelte Werke in 12 Bänden*.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76.
- R. Koester: Hermann Hesse. J.B. Metzlerscher Verlagsbuchhandlung, Stuttgart 1975.
- H. Ball: Hermann Hesse. *Sein Leben und sein Werk*.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78.
- G. Hafner: Hermann Hesse. *Werk und Leben*. Verlag Hans Carl, Nürnberg 1954.
- B. Zeller: Hermann Hesse. Rowohlt Taschenbuch Verlag, Reinbek bei Hamburg 1980.
- H.J. Lüthi: Hermann Hesse. *Natur und Geist*. Verlag W. Kohlhammer, Stuttgart 1970.
- V. Michels (Hrsg.): *Materialien zu Hermann Hesses "Siddhartha"*. Erster Band.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75.
- V. Michels (Hrsg.): *Materialien zu Hermann Hesses "Siddhartha"*. Zweiter Band.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78.
- F. Baumer: Hermann Hesse. Colloquium Verlag, Berlin 1961.
- A. Hsia: Hermann Hesse und China. *Darstellungen, Materialien und Interpretationen*.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1.
- O. Mann u. W. Rothe (Hrsg.): *Deutsche Literatur im 20. Jahrhundert*. Band II: *Gestalten*. A. Francke AG Verlag, Bern 1967.
- Th. Ziolkowski: *The Novels of Hermann Hesse. A Study in Theme and Structure*. Princeton Univ. Press 1965.
- J. Röttger: *Die Gestalt des Weisen bei Hermann Hesse*. Bouvier Verlag, Bonn 1980.
- 이인웅 편 : 헤르만 헤세. 작가론 총서. 문학과 지성사, 서울 1980.
- 김경돈 역주 : 신역노자. 현암사, 서울 1984.

《Zusammenfassung》

Eine Studie zum Einheitsgedanken in H. Hesses "Siddhartha"**Kwon, Ki-Rok**

Im Jahre 1922 erschien "Siddhartha", eine indische Dichtung, deren Inhalt Hesse selbst als den Ertrag seines Lebens und zugleich einer bald 20 jährigen Vertrautheit mit den Gedanken Indiens und Chinas ansah.

Hesse hat "Siddhartha" in zwei Teile gegliedert, den ersten in vier Kapitel, den zweiten in acht Kapitel.

Anf Grund der inneren Struktur, ist man sich jedoch darüber einig, den "Siddhartha" in drei Teile zu je vier Kapiteln aufzuteilen.

Der Fluß ist das Symbol, das die auseinanderstrebenden Kräfte integriert und zusammenschließt: er hat für Hesses "indische Dichtung" eine zentrale Bedeutung.

Was ich aber in dieser Abhandlung besonders ergründen möchte, ist das Erlebnis der Einheit der Hauptfigur Siddhartha.

Am Anfang zweifelt Siddhartha nicht daran, daß ein jeder das Selbst (den Atman der Inder) in sich trägt, und daß das Selbst zugleich eins mit dem Weltall ist. Aber er kennt den Weg nicht, um zum Selbst zu gelangen. Siddhartha, von seinem Gefühl geleitet, daß die Lehren des Brahmanismus ihn nicht befriedigen, faßt den Entschluß, seinen Elternhaus zu verlassen, sich gemeinsam mit seinem Freund Govinda den Asketen und Weltverneinern, den Samanas anzuschließen. So versucht Siddhartha, von dem empirischen Ich auf dem Weg der Kasteiung und Yoga wegzustreben und zum Selbst zu gelangen. Als er jedoch nach und nach einsehen muß, daß Askese und Yoga ihn nur immer weiter von sich selbst entfernen, macht er sich eines Tages auf den Weg zu dem Buddha, um dessen Lehren kennenzulernen. Doch während Govinda zufrieden seine Zuflucht zu Buddhas Lehren nimmt, erkennt Siddhartha, daß er seinen eigenen Weg suchen muß, unabhängig von allen Lehren.

Diese Besinnung auf sich selbst ist sein Erwachen.

Jetzt will er das empirische Ich und die Welt nicht mehr negieren und als Maya (Illusion) abtun, sondern in ihr den Weg zum Selbst suchen. So läßt er das nur auf den Geist gerichtete Leben hinter sich. Mit gewandelter Sicht, geht Siddhartha auf die Welt der Sinne und des Miterlebens zu.

Mit der Unterstützung der Kurtisane Kamala wird Siddhartha bald so wohlhabend, daß er sich alle ihm wünschenswert erscheinenden Freuden des Lebens leisten kann. Nach vielen Jahren aber sieht er ein, daß dieser Weg ebenso töricht gewesen war wie der Weg der Askese; daß sein luxuriöses Leben sein eigentliches Selbst eingehüllt und betäubt hat in eben derselben zersetzenden Weise wie zuvor die Übungen des Joga. Also beschließt er, aus der Scheinwelt Sansaras auszubrechen und seinen eigenen Weg anzutreten. Siddhartha verläßt heimlich die Scheinwelt und kehrt zurück an den Fluß, wo er, auf dem Gipfel seiner Verzweiflung, beinahe Selbstmord begeht.

Nach dem Selbstmordversuch folgt sein letztes Erwachen, ein Erwachen aus der Verzweiflung in ein völlig neues Dasein hinein. Während seines Zusammenlebens mit dem weisen Fährmann Vasudeva lernt Siddhartha von dem Fluß, daß es keine Zeit gibt und daß alles Seiende eine Einheit bildet.

Siddhartha hat das, was der Fluß ihn lehrte, so gut behalten, daß er nun selbst die Vollkommenheit und Gleichzeitigkeit ausstrahlt, die der Fluß symbolisiert.

Siddharthas letztes Ziel ist das Bejahen der Einheit, die hinter den scheinbaren Polaritäten allem Seienden liegt, ein Bejahen aus Liebe. Die Annäherung Siddharthas an den Zustand des Einheitsbewußtseins spiegelte sich in immer größer werdender Ähnlichkeit zu Vasudeva und seine Vollendung im Erreichen des gleichen wissenden Lächelns. Dieses Lächeln ist ein Symbol der inneren Vollendung; innere Vollendung aber bedeutet bei Hesse das Sich-Bewußt-Werden über die Einheit, Ganzheit und Gleichzeitigkeit alles Seienden.

Er hat die Vollendung erlangt, weil er die Ganzheit der Welt bejahte, sie aufnahm als einen Teil seiner selbst und sich als einen Teil der Weltentwicklung verstehen lernte.